

전남서 진드기 감염 첫 사망자 발생

전남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60대 여성 환자가 광주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던 지난 25일 숨졌다고 27일 밝혔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에서 밭일 작업을 하던 이 여성은 발열, 근육통 증세로 전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혈소판 감소, 신장 기능 장애가 발생해 24일 광주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5일 숨졌다. 혈액검사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올 들어 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70명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60대 여성 환자 치료받다 사망 긴 소매 등 피부 노출 최소화

적으로 165명, 전남에서는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SFTS는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30%로,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고위험군은 주의가 요구된다.

SFTS에 감염되면 발열, 식욕저하·구역·구토·설사·복통 등 소화기증상, 두통, 근육통, 의식장애·

경련·혼수 등 신경증상, 출혈 등이 생긴다. 이와 함께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고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SFTS를 예방하려면 풀숲이나 덩굴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순석 전남도 보건외과과장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야외활동자나 농·축산 종사자는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을 지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중서 흥기·차량돌진 난동 3명 사망 4명 부상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27일 40세 남성이 흥기를 휘두르고 차량으로 돌진하는 난동을 벌여 3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우한시 공안국에 따르면 우한시 소재 중바이(中百) 물류에 근무하던 왕상(王祥)이 해고당한테 앙심을 품고 이날 아침 흥기를 들고 회사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을 무차별로 찢어 3명을 부상시켰다.

이어 왕상은 차량을 몰고 시내 107국도 부근에서 행인 4명에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왕상을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왕의 현재 상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왕상이 행인들을 친 현장에는 여러 명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으며 출동한 경찰관 중에도 부상자가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 원한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풀리기 위해 흥기로 무고한 사람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사건이 꼬리를 몰고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난동자는 주로 예리한 흉기나 사제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쓰는 경우가 많다.

日, 산호 불법채취 혐의 중국 선장 체포

일본이 26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산호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중국인 선장 한명을 체포했다.

27일 중국 환주왕은 일본 언론을 인용해 전남 일본수산청 규슈(九州) 어업조정사무소가 중국인 선장 우즈첸(吳)이 당국에 체포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우즈첸과 6명의 선원이 탄 배는 지난 25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인근 일본 EEZ내에서 산호 불법 채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당국은 이들의 배에서 산호와 산호 채취 도구 등이 발견했다. 중국 어선들은 일본 인근 해역에서 종종 산호를 불법으로 채취해 왔다.

이는 중국 부유층 사이에 산호 장식품 수요가 늘면서 고가로 팔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 산호는 특히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스라엘 금속탐지기 제거에도 반발 여전

이스라엘 당국이 예루살렘 성지에 설치한 금속탐지기를 철거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무슬림 지도자들은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의 알야크사 사원에 대한 보이콧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이 금속탐지기 철거를 발표한 지난 25일 지도자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지에) 취한 모든 조치가 사라져야 예루살렘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금속탐지기를 대체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최첨단 스마트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금속탐지기 철거에 이은 보안카메라 설치 계획 철회, 이스라엘이 성지 현장에 추가로 배치한 경력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 무슬림 교도에게 알야크사 사원 보이콧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알야크사 사원을 관리하는 요르단 당국의 이슬람 워크프 재단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시위로 사원 외부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올릴 것"을 권고했다. 세이크 유수프 아디스 워크프 재단 고위 관리자는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기록교도가 행하는 이슬람 성지 참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무슬림 금요 합동예배가 대규모 시위로 변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14일 알야크사 사원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보안을 이유로 템플마운트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이슬람권의 반발을 샀다. 알야크사 사원이 있는 템플마운트는 무슬림 성지와 유대인 성전이 모여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성스러운 장소로 꼽힌다.

무슬림계는 이스라엘의 금속탐지기 설치를 두고 성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사원 외부에서 대규모 예배를 올렸고 이는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뉴시스



한가로운 여름풍경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후 경남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해변에서 피서객들이 한가롭게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불법구금·가혹행위로 간첩 자백 후 수감...“국가 손해배상 책임”

광주지방법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으로 12년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박모씨와 박씨의 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박씨에게 1억 2200만원, 박씨의 가족 2명에게 각각 692만13076원과 461만53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7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된 뒤 37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광주교도소에서 12년 3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1989년 가석방됐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불법 구금 상태에 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9월 박씨의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된 지 39년 만이었다.

이에 박씨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부는 “박씨가 간첩 혐의 등을 자백한 것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

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박씨를 불법으로 구금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대한민국은 박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인격경제,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구금 당시 뿐만 아니라 석방 이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춘정 기자

광주지역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외면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대다수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후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공공기관 광주 지역 근무지 기준의 채용공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 중 단 3건만이 정부 방침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지 않은 13건의 채용공고는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다. 이어 출신학교 12건, 학업성적 10건, 어학성적 9건, 사진 5건, 신체조건 1건, 종교 1건 순이었다.

어학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인 경우 사진에 그 사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어학성적을 요구한 채용공고 9건 중 단 1건만 사유를 명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을 저해하고 응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합인편] 2017. 7. 28. ~ 8. 6. (10일간)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 Festival

2017년도 17번째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2018.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